

중앙정부 정책동향

01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대전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상위 수준으로 쏠림 현상

정부가 경제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평가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에 따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은 대전·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 도(道)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를 유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종합순위에서는 대전과 수도권이 혁신성장역량을 구성하는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의 2대 요인 모두 최상위권(1~4위)을 유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이상적인 발전패턴을 보였다. 반면, 최하위권인 14~17위에는 경북, 강원, 전남, 제주 등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지역들이 갖고 있는 고령화 심화 및 경제 취약 등의 실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충북은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이며 17개 광역시·도 대비 중위권(8~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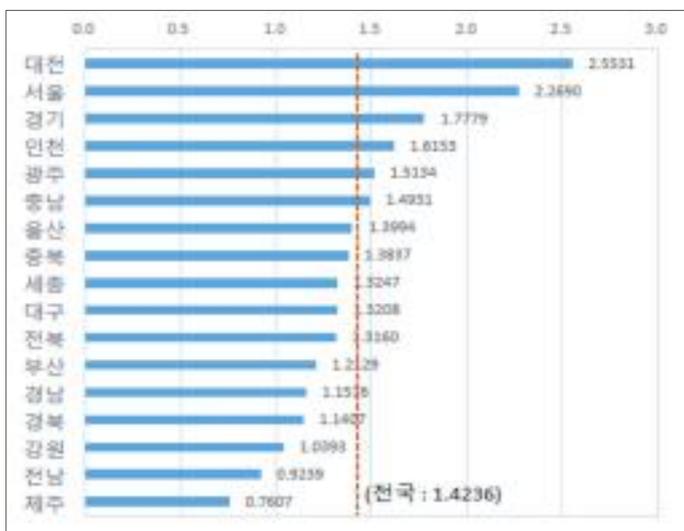
구분	혁신기반역량 (전국평균)	미래산업기반역량 (전국평균)	해당지역
[유형Ⅰ] 혁신성장 선도형	↑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유형Ⅱ] 미래산업기반 의존형	↓	↑	대구, 충남
[유형Ⅲ] 혁신성장 취약형	↓	↓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형Ⅳ] 혁신기반 의존형	↑	↓	울산, 세종

혁신성장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연구개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고부가가치기업 입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 내에 구축·확산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역량은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Ⅰ에 5개 지역, 유형Ⅲ에 8개 지역이 집중되어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이 혁신성장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속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상·하위권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다.

한편, 연구를 추진한 산업연구원에서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정착 시키고, 연구개발과 창업활동·신산업 부문 간 단절현상을 극복하는 기술사업화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6일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크기로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구·사회·토지·경제·생활·복지·국토인프라 등의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되었고, 도보 15분(750m)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 진단, 국토계획·도시 계획·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과의 협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map.ngii.go.kr) 서비스를 통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증평군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하는 2021년도 국가균형 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충청북도 증평군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며, 7회 연속 선정되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균형위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로 지원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증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연계와 협력! 디자인으로 물들인 삼기천 20리)은 삼기천 20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역량강화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죽리마을은 죽리판 구엘공원, 담벼락 미술관 등 다양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다. 더불어 독특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탄 죽리초등학교는 타 지역으로부터 학생 유입이 크게 늘어 추가로 반이 편성되는 등 독특한 사업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토론회 의견 수렴,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학생·군인 대상 인문학 아카데미, 초정약수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사업, 공원 디자인 등 삼기천 20리 사업을 구상해 각 장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수사례에 선정되면 10월 중 기관·개인 표창이 수여되며, 균형위에서는 우수사례의 성공모델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보은군 '말티재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 청신호

보은군의 '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말티재를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문제가 해소될 전망으로 관광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보은군의회 제359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사업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며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속리산 말티재에 전체면적 7,500㎡(주차면수 300대) 규모의 주차시설 1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사업은 2021년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9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추진되는 속리산 말티재 일대는 행락철이면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을 고갯길 차선에 불법 주차해 불편 가중과 안전사고에 노출되곤 했다. 이후 속리산 관문과 숲 체험 휴양마을, 꼬부랑길, 솔향 공원에 말티재와 연계해 들어서면서 주차문제는 심화되었고, 대규모의 집라인과 스카이바이크 등도 운영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보은군은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공되면 관광객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지역발전연구센터 내부자료

영동군 지역상생을 생각하는 '일라이트CC 조성' 추진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의 미래 관광사업을 이끌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사업 중 민간개발부분이 본격 착공했다.

민간사업자인 레인보우(주)는 영동군으로부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내 군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8월 초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명은 '일라이트 CC' 조성사업으로 3년간 총 750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인 일라이트 CC와 101실 규모의 호텔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4월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일라이트CC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인보우(주)는 향후 골프장과 호텔 등 각종시설에 영동 과일과 와인 등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시설 곳곳에 설치해 과일의 고장 영동군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지역의 특화자원인 과일과 와인, 일라이트(ilite) 등과 최신 관광 트렌드를 결합한 힐링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청북도 2·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영동와인터널(2018년 10월 개장), 복합문화예술회관(2019년 4월 개관), 과일나라 테마공원(2017년 4월 개장) 등의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출처 :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단양군 '별다른 동화마을'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 순항

어린 시절 동화 속 주인공들과 재회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상상은 현실이 되어, '별다른 동화마을'의 이름으로 단양군에 조성된다.

단양군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단성면 외중방리 산 34번지 일대(6만 4,175㎡)에 주거·관광 복합단지인 '별다른 동화마을'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는 외중방리 일원은 전 세계의 동화 속 캐릭터들을 주제로 주거, 전시학습, 휴양시설을 비롯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관광·주거 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특히 동화마을은 테마관광 주거단지로 조성돼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입 귀농·귀촌인들이 상시 거주할 총 22호의 주택(330㎡ 16호, 396㎡ 6호)이 신축될 예정이다.

세부시설로는 다양한 전시학습시설이 예정됐으며, 이 중 별그림 전시학습관은 체험농장과 연계한 농기계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방문객·입주자 간 소통 공간이자 영농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양강을 조망할 수 있는 별다른마당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로컬농산물을 판매·홍보하는 통로로 운영되며, 기타 휴양 시설로 숲속 길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숲속 정원과 도시민들의 영농체험을 위한 팜가든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단양군은 동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견인할 새로운 명소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출처

- 각 시·군별 홈페이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내부자료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1.08.01.~21.08.31.)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